



‘FA 안치홍’ 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KIA 떠나는 프랜차이즈 스타

성실·꾸준함 장점 내야 지킴이
10시즌 타율 0.300·100홈런·586타점
골든글러브 3회 수상·KS 2회 우승

힘주었던 FA협상

지난해 손바닥·발목 등 잦은 부상
성적 하락·FA 한파 겹쳐
5~6차례 만남에도 협상 지지부진

부산갈매기 되다

롯데 적극적 러브콜에 고심 끝 결정
‘2+2’ 조항 실행시 4년 최대 56억원
KIA 팬들에 미안함 편지로 남겨

‘호랑이 군단’의 프랜차이즈로 사랑을 받았던 안치홍이 광주를 떠난다. 2020시즌 안치홍은 롯데 유니폼을 입고 사직 그라운드에서 선다.

롯데 자이언츠는 6일 안치홍과 계약 기간 2년 최대 26억원(계약금 14억 2000만원, 연봉총액 5억8000만원, 옵션 총액 6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일반적인 FA 계약과는 다른 ‘2+2’가 이번 계약의 핵심이다.

2020·2021시즌 롯데 선수로 뛰는 안치홍은 2022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상호 계약 연장 조항이 있어 2022년 재계약을 할 경우 2년 최대 31억원을 받게 된다. ‘2+2’가 실현되면 계약 규모는 최대 4년 56억원(바이아웃 1억 제외)이 된다.

2년 뒤 롯데가 연장을 요청할 경우, 안치홍은 계약 연장 또는 자유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롯데가 2년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바이아웃으로 선수 측에 1억원을 지급하고, 안치홍은 자유 계약 선수가 된다.

안치홍에게는 자존심을 건 새로운 도전이다.

2009년 서울고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안치홍은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타이거즈 내야를 지킨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입단 첫해 KBO리그의 ‘최연소 기록’들을 갈아치운 그는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결정적인 한방을 쏘아 올리며 우승컵의 향방도 바꿨다.

‘대표팀 불운’으로 두 차례 심한 속앰을 했던 안치홍은 경질청탁 복무를 위해 잠시 팀을 떠났지만, 복귀 후 강렬한 활약을 하면서 2년 연속 골든글러브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안치홍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에 처음 발을 딛은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즈 자란 코튼 서클이지만 제 고향은 광주라고 느껴집니다.
타이거즈팬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결정을 전하는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롯데로 옮긴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제가 했던 20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복창관 마음에 혼자 짐을 내가 걸었습니다. 어떤 생각해도 타이거즈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선수 중 한 명이 저였다는 점에 죄송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까지 제게 주신 성원과 사랑에 어떻게 감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타이거즈에서 만들었던 추억은 정말 무척하게 많네요. 우승도 두 번이나 했고, 골든글러브도 수상하고 팬분들의 사랑 덕분에 홈스타전도 여러번 나가겠습니다.
팬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KIA 타이거즈 팬들과 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6일
안치홍 드림
가문

안치홍은 올 시즌 최악의 부진에도 통산 10시즌 1124경기에서 타율 0.300, 100홈런, 586타점을 기록했다. 세 차례 골든글러브와 두 번의 한국시리즈 우승도 경험했다.

하지만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에서도 안치홍은 불운했다.

2019 시즌 초반 손바닥 부상을 시작으로 발목, 손

가락 부상을 잇달아 입었고 ‘공인구 효과’까지 안치홍의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 매년 제 몫을 해줬던 안치홍에게는 최악의 시즌이 됐고, 설상가상 FA 시장까지 얼어붙었다.

꾸준했던 성적은 물론 입단 첫해부터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지난해 주장으로 역할을 하며 그라운드 안팎에서 모범이 됐던 안치홍에 대한 KIA 구단의 열기는 뜨겁지 않았다.

조계현 단장이 “팀에 꼭 필요한 선수다”고 수차례 언급하고 공개 석상에서도 안치홍 계약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구애는 없었다.

구단은 5~6차례 만남에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다가 해가 넘긴 뒤에야 뒤늦게 구단안을 전달했다.

이화원 대표이사가 “김선빈과 안치홍은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들이다. 시장 가치와 함께 두 선수의 앞선 공헌도 등도 생각해야 한다. 두 사람의 마일리지도 고려해서 배려하겠다”고 했지만 공교롭게도 이번 FA 시장의 기준점이 된 오지환의 40억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오지환은 앞서 LG와 4년 총액 40억원(계약금 16억원·연봉 6억원)에 계약을 했다. 옵션이 빠진 순수 보정액이다.

“2019시즌 너무 부족했다. 준비 잘해서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던 안치홍의 ‘진심’과 달리 구단은 ‘진심’이지 못했다. 외부에 보여준 열정과 달리 선수를 향한 실제 반응은 냉랭했다.

“실 곳이 없다”는 느낌을 받은 안치홍은 ‘필요한 선수’로 존중해준 롯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2년’은 화려한 부활을 위한 안치홍의 각오이기도 하다. 지난 시즌 부족했던 부분을 실력으로 만회해 2루수로 진짜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다.

그 결과에 따라 안치홍은 2년 뒤 지급과는 다른 위치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자신의 또 다른 야구 인생을 고민할 수도 있다.

KIA에 대한 애정이 강했던 안치홍은 시즌이 끝난 뒤에도 리커룸에 있는 집을 빼지 않았다. “빨리 계약을 끝내고 챔피언스필드에 나와서 훈련을 하고 싶다”며 안치홍은 2020시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다렸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안치홍은 6일 오전 약속했던 경기장에 나가 집을 쟁겨 나왔다.

안치홍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지난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부족했던 만큼 이곳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한 마음이 크다.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에 롯데를 선택하게 됐다. 감독님, 단장님께서 진심으로 다가와 주셨고 필요한 선수로 느끼게 해주셨다.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게 선수로의 역할이고 자부심이다”며 “KIA에서 팬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겠다.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안치홍은 또 KIA 팬들을 위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친필 편지를 남기며 감사함과 미안함을 전했다.

안치홍은 또 KIA 팬들을 위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친필 편지를 남기며 감사함과 미안함을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 아쉬운 복귀전

FA컵 64강전 미들즈브러전 풀타임 징계 후 첫 출전... 공격포인트 '0'

손흥민(28·토트넘)이 공격포인트 없는 아쉬운 경기로 복귀 첫 경기를 마쳤다.

손흥민은 5일 영국 미들즈브러의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FA컵 64강전 토트넘과 미들즈브러의 경기에서 풀타임 출전했다. 지난달 23일 첼시와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 튀디거의 가슴계를 발로 차 퇴장 및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뒤 출장한 첫 경기였다. 팀은 1-1로 비겼다.

프리미어리그 6위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과 달리 미들즈브러는 2부 리그(EFL 챔피언십) 16위를 기록 중인 상대적 약팀이다. 토트넘은 볼 점유율 72%-28%, 슈팅 수 14-6으로 경기를 주도했다.

하지만 미들즈브러는 수비수와 미드필더를 후방 깊숙히 배치하며 골문 앞 ‘밀집 수비’를 펼쳤고, 토트넘은 좁혀진 수비벽을 뚫지 못했다.

손흥민은 슈팅 기회를 잡았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전반 8분 수비수 3명을 뚫고 에릭센에게 패스하며 골 기회를 만들었으나 골키퍼에 막혔다. 전반 40분 회심의 중거리슛도 수비수 다리에 막혔다.

결국 후반 5분 미들즈브러가 기습적인 침투 패스를 성공하며 선취점을 따냈고, 토트넘은 후반 16분 모우라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데 만족해야 했다.

FA컵은 32강전까지 연장전이나 승부차기 없이 진행되며, 승부가 나지 않으면 재경기를 통해 승부를 가린다. 이에 따라 토트넘은 14-15일 중 미들즈브러와 재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K리그 스토브리그도 뜨겁네

광주 FC·전남 드래곤즈 이틀 연속 수비수·골키퍼 등 선수 보강

광주FC가 안산그리너스에서 전천후 수비수 박준희(28)를 영입했다.

광주는 6일 포항스틸러스, 안산그리너스에서 활약한 수비수 박준희를 영입해 수비를 보강했다.

박준희는 몸을 사리지 않는 대인마크와 저돌적인 움직임, 날카로운 크로스가 장점인 측면수비수다. 중앙수비부터 미드필더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며, 팀에 헌신적이라는 평가다.

박준희는 2014년 K리그 드래프트 1순위로 포항에 입단한 뒤 2017년 안산 창단멤버로 합류해 주전자리를 꿰찼다. 프로통산 102경기 4골 5도움을 기록했으며, 타고난 리더십과 성실함으로 2018년에는 주장을 맡기도 했다.

박준희는 “지난 시즌 광주가 보여준 저력을 잊지 못한다. 광주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며 “동계훈련에 전념해 팀에 녹아들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전남드래곤즈도 우선지명으로 3명을 추가 영입했다.

유스팀인 광양제철고 출신의 아주대학교 골키퍼 김병엽(21), 호원대학교 골키퍼 신지훈(22)이 전남 유니폼을 입는다. 광양제철고의 수비수 남윤재(19)도 프로로 직행한다.



광주 박준희 전남 신지훈 전남 남윤재 전남 김병엽

김병엽은 반응 속도와 점프 캐칭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타입으로 페널티킥과 같은 1대1 상황에서 강한 모습도 장점이다.

김병엽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팀이 목표하는 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훈은 침착하고 안정적으로 볼처리를 하는 골키퍼다.

191cm의 큰 키를 활용한 공중볼 처리 능력이 뛰어난 신지훈은 “꿈에 그리던 전남드래곤즈에 왔으니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초·중·고 모두 전남 유스를 거친 남윤재는 꾸준히 연령별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뛰어난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킥과 헤딩이 좋다.

남윤재는 “올해 1부로 승격할 수 있게 형들을 많이 도우면서도, 많이 배워 좋은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 신인인 만큼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